

【 특 집 】

# 요동에서 살아남기: 홍타이지 시기 경제 위기의 돌파구, 'Tabcin'\* \*\* -천총 연간(1627~1636)을 중심으로-

김 윤 순\*\*\*

## ┃ 차 례 ┃

- I. 머리말
- II. 만주어 문헌 속의 'tabcin'
- III. 'tabcin'의 운용과 규칙
- IV. 狹義의 'tabcin', 廣義의 'tabcin'
- V. 맺음말

## 국문초록

본 연구는 만주어 문헌에 기록된 'tabcin'에 주목하여 홍타이지 시기 (1627~1643) 'tabcin'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서 'tabcin'의 의미를 입관 전 청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만주어 문헌 속에서 'tabcin'은 후금-청이 처한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홍타이지의 통제 하에 구체적인 규칙이나 방법을 설정하고 조직적으로 시행되었다.

홍타이지 시기 'tabcin'의 개념은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해 살펴볼 수 있다. 좁은 의미에서의 'tabcin'은, 즉각적인 'olji'와 재화 확보에 목적을 둔 '물자 보급 투쟁'이다. 'tabcin'의 대상지가 되었던 곳은 명과

\* 이 논문은 2023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3S1A5B5A17085761)

\*\* 본고는 2023년 5월 26일 만주학회·강원대 국학연구소·인문과학연구소 공동학술회의 '초연결시대, 다시보는 글로컬 공간, 만주-이질성과 동질성'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글이다.

\*\*\* 강원대학교 사학 전공 강사.

조선, 몽골과 동해여진 지역이었다. 'tabcin'은 명의 군수물자를 제거, 차단하는 활동에도 활용되었다.

넓은 의미에서의 'tabcin'은 '대외경제 확대 시도'라 볼 수 있다. 홍타이지가 명으로의 대규모 원정, 'tabcin'을 통한 물자 획득과 더불어 명에 계속해서 화의를 요청했던 것은 명과의 관계를 안정시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또 후금-청은 조선으로의 원정과 'tabcin'을 통해 국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고, 명을 대신하여 조선에 식량과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요구했으며, 식량 부족, 포로 속환을 통한 자원 확보, 변경 호시 요구 등을 통해 후금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했다. 홍타이지는 차하르 정벌을 통해 몽골 세력이 가지고 있던 만리장성 지역의 대명 경제 관계를 병합하게 되면서 이후 만리장성 지역에서 대명 관계를 주도하게 된다. 홍타이지가 경제 위기와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변국에 대외경제 확대를 시도했던 것이 성공하면서 북방민족 중심의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대청체제로의 전환까지 이어진 것이다.

주제어: 탐친, 홍타이지, 요동, 청, 경제 전략, 국제 관계

## I. 머리말

무릇 전투에 나갈 때는 병참 부대에서 군량이나 군기를 운반하는 일 없이 군졸들이 모두 스스로 준비하여 나간다. 출병할 때는 모두가 매우 즐거워하고 그 가족들도 모두 기뻐하는데, 이는 전리품을 많이 얻어오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군졸의 집이라도 종이 네다섯 명은 있어서 모두 다투어 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이는 재물을 약탈[擄掠]하기 위해서다.<sup>1)</sup>

우리는 위의 글을 통해 후금의 군졸과 가족들이 출정을 매우 즐거워하고, 그

1) 이민환, 중세사료강독회 역, 2014, 『1619년 심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책중일록』, 서해문집, 128쪽.

이유가 오로지 재물을 약탈하여 전리품을 많이 얻는 데에 있는 오랑캐의 야만적인 모습을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후금의 군졸과 가족의 입장에서 본다면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후금의 군졸과 가족들이 출병을 즐거워하고 앞다투어 나서려 했던 것을 보면, 약탈이란 행위가 과연 그들에게 야만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였을까? 만약 그들의 행위가 당시 물자 부족 등을 겪던 후금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식 중 하나였다면, 다른 주체적인 개념을 담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이에 본 연구는 입관 전 청의 만주어 문헌 속에 기록된 'tabcin'에 주목했다. 'tabcin'은 기존의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빼앗다' 등의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개념으로 통용되어 왔다. 이는 약탈의 피해를 당한 농경 사회의 부정적 시각이 크게 반영된 한문 사료를 중심으로 입관 전 청 사회를 이해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tabcin'이 후금의 입장에서 교역 단절, 국제적 고립, 기근 등으로 인한 당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 보다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유목, 수렵, 초기 농경 등을 경제 기반으로 하는 북방민족 사회에서 약탈은 공납, 교역과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사회의 유지와 발전에 필요한 재화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였다.<sup>2)</sup> 특히나 공납과 교역으로 재화의 획득이 어려울 때 약탈의 존재는 더욱 부각되었다. 농경 사회의 약탈을 통해 식량, 물자, 노동력의 확보는 물론 교역이나 공납을 가능, 확대하기 위한 전략적 압력 수단으로서도 활용되었다. 약탈은 예로부터 북방민족 사회에서 단순한 물품 획득의 의미를 넘어서 여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홍타이지 시기에도 적용된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 시기부터 이어진 불안정한 요동 지배 체제, 여진인과 한인 간 사회적 갈등, 대기근으로 인한 식량 부족 및 곡식 가격의 폭등이라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Han, 汗)의 자리에 올랐다. 홍타이지는 내부 안정을 꾀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였으나 후금 사회는 여전히 물자 부족에 시달리고 있었다. 후금 경제 구조의 특성상 경제 회복을 위한 물자,

2) 東洋史學會 編, 1993, 『東亞史上의 王權』, 한울아카데미, 137쪽.

기술, 노동력 등의 재료는 여전히 대외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당시 후금-청을 둘러싸고 있던 명, 조선, 몽골, 동해여진 등과 전쟁, 협상, 견제, 대치 등이 지속되면서 후금의 대외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았다. 홍타이지는 이러한 국제적 고립과 사회·경제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쟁과 화의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자 확보, 또는 물품 공급지의 확보, 교역 개시, 노동 인구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바로 'tabcin'을 이용하였고, 'tabcin'은 홍타이지 시기 내내 이루어졌다.

일반적으로 약탈이란 의미로 통용되는 'tabcin'은 교역 단절, 재해, 기근으로 인한 경제 위기와 대외 의존적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입관 전 청에 식량, 군수품, 노동 인구 등의 물자 획득을 위한 중요 수단 중 하나로 인식하거나<sup>3)</sup> 담보상태인 대명 전쟁과정에서의 군사 전략 중 하나로 이해하였다.<sup>4)</sup> 또한 상호 간의 교역 개시나 화의를 달성하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된 것으로도 인식하고 있다.<sup>5)</sup> 이외에도 'tabcin'을 통해 획득한 인구나 물자가 후금-청 사회에서 황권 강화나 생산 활동, 병력 증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거나<sup>6)</sup> 'tabcin'의 최대 피해자인 명 화북 사회에 미친 영향도 연구되었다.<sup>7)</sup>

하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tabcin'은 무질서, 무체계라는 고정화 된 틀로만 인식하면서 여러 필요에 의해 전략적으로 활용된 'tabcin'의 구체적인 양상에 대한 본

- 
- 3) 關克笑, 麻秀榮, 1998, 「滿族崛起時期的多元經濟」, 『滿族研究』, 第1期; 谷井陽子, 2006, 「八旗制度再考(二)-經濟的背景」, 『天理大學學報』 57-2; 김문기, 2012,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 4) 李鴻彬, 2003, 『滿族崛起與清帝國建立』, 天津古籍出版社; 孫文良·李治亭 著, 2012, 『明清戰爭史略』, 中國人民大學出版社; 孫文良·李治亭, 2012, 『清太宗全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2012; 박민수, 2018,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中國 전략」, 『軍史』 107.
- 5) 김종원, 1999, 『근세 동아시아관계사 연구』, 해안: 토마스 바펠드, 윤영인 역, 2009,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 6) 조병학, 2004, 「후금(淸)의 흑룡강 部族에 대한 평정 과정 및 복속 정책」, 『몽골학』 17; 소찬영, 2010, 「入關前 淸朝의 經濟의 狀況-崇德 年間의 掠奪戰과 奴僕(aha) 계층을 中心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 34; 남의현, 2014, 「16~17세기 豆滿江 邊境地帶 女眞의 성장과 국제질서의 변화-瓦爾喀 등 女眞族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1; 이옥지, 2021, 「천총8-9년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과 홍타이지의 팔기개혁」, 『명청사연구』 55.
- 7) 정병철, 2008, 『‘天崩地裂’의 시대, 明末淸初의 華北社會』, 전남대학교 출판부, 2008; 沈一民, 2010, 『淸南略考實』, 黑龍江大學出版社有限責任公司.

격적인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홍타이지 시기 'tabcin'은 명, 조선 등 주변국을 정벌하는 과정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주로 후금-청과 각 지역의 정벌 과정에서 보이는 'tabcin'의 원인과 활용, 역할에 대해서만 일부 다루어졌을 뿐이다.

'tabcin'은 홍타이지 시기 이전에도 존재한 북방민족 사회의 경제 생활 방식 중 하나로, 누르하치 시기에도 만주어 문헌에서 산견되고 있다. 그러나 누르하치 시기 만주어 문헌 속에 'tabcin' 기록이 10여 건 정도로 많지 않고 'tabcin'의 대상지도 명, 저천부, 여허국에 한정되어 있다. 당시 후금-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tabcin'의 구체적 양상과 변화상을 살펴 보기에는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명과의 전쟁 이후 국제적 고립, 공납과 교역 단절로 경제 위기에 처해 'tabcin'의 존재가 더욱 부각된 시기, 'tabcin'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홍타이지 시기를 중심으로 'tabcin'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홍타이지 시기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서 'tabcin'의 의미를 후금-청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tabcin'에 대한 사전적 검토와 용례를 알아보고, 『구만주당』, 『만문노당』, 『내국사원당』에 기록된 'tabcin' 기사를 분석하여 만주어 문헌 속에 나타난 'tabcin'의 특징을 살펴볼 것이다. 만주어 문헌에서 '약탈하다', '빼앗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는 여러 용어들 중 본 연구에서 'tabcin'이라는 용어에 주목한 이유가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tabcin'의 구체적인 운용 방법과 규칙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기존에 약탈로 이해되는 'tabcin'이 무질서하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며 경로, 규모, 목적, 보고 체계, 분배 등 구체적인 규칙이나 방법을 설정하고 있었음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홍타이지가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수습할 돌파구로서 이용한 'tabcin'의 개념을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구분하여 정리해 볼 것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인식 틀에서 벗어나 'tabcin'의 구체적 양상과 개념을 파악해 보는 것은, 입관 전 청 사회의 경제 생활 방식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입관 전 청과 명, 조선, 몽골 간의 거시적인 대외관계에서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방적 시각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다양

한 흐름에서 흥타이지 시기의 경제적 상황과 대외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만주어 문헌 속의 ‘tabcin’

오늘날 ‘약탈’은 사전적 의미로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는다’는 뜻으로 사용되는데, 만주어 문헌에서 ‘약탈하다’, ‘노략하다’, ‘빼앗다’, ‘침해하다’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만주어로는 ‘tabcilambi’, ‘cuwangnambi’, ‘durimbi’, ‘gajimbi’, ‘gamambi’, nungnambi’ 등이 있다.<sup>8)</sup> 이 중 이민환의 『건주문건록』에 나오는 ‘출병하여 재물을 약탈’하는 상황은 ‘tabcilambi’에 해당하며,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tabcin’은 ‘tabcilambi’의 명사형이라 볼 수 있다.<sup>9)</sup> 『御製增訂清文鑑』에서 ‘tabcin’은 다음과 같이 풀이하고 있다.

**tabcin[搶]:** cooha be sindafi teisu teisu bata i aika jaka be suweleme gairengge tabcin sembi’,  
‘병사를 풀어 각자 적의 온갖 물건을 찾아 취한 것을 ‘tabcin’이라고 한다’.<sup>10)</sup>

‘tabcin’ 옆에는 ‘부딪다’, ‘충돌하다’, ‘밀다’, ‘빼앗다’라는 의미를 뜻하는 ‘搶’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뒤에 만주어로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 ‘tabcin’은 병사를 푸

8) 후금-청의 ‘tabcin’ 상황을 명과 조선 측의 한문 문헌인 『崇禎長編』, 『조선왕조실록』에서는 ‘掠’, ‘奪’, ‘搶擄’, ‘搶掠’, ‘劫掠’, ‘劫奪’, ‘殺掠’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順治初纂漢文太宗實錄』, 『太宗文皇帝實錄』에서는 ‘略’, ‘掠’, ‘齒掠’으로, 『太宗文皇帝實錄』에서는 주로 ‘略’으로 기록하고 있다. 명과 조선 측의 한문 문헌과 청 측의 한문 문헌에서 용어 사용에 다소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9) 전투 상황에서 ‘tabcin’하여 ‘olji’를 취한다는 뜻의 sosambi라는 만주어도 있으나 본고에서 다루고 있는 흥타이지 시기 만주어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御製增訂清文鑑』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입관 후 ‘tabcin’ 관련 상황에서 사용되었던 단어로 보인다.

10) Chuan, Heng, 1983, 『(影印)文淵閣四庫全書 第二三二冊 御製增訂清文鑑 三十三卷, 補編四卷, 總綱八卷, 補編總綱一卷』 臺灣商務印書館, 武功部1, 征伐類 第八 232-261. 이하 『御製增訂清文鑑』으로 쓴다.



상황에 한정하여 쓰이는 것은 아니며 물품을 ‘가져오다’, ‘가져가다’라는 이동의 의미가 두드러지고,<sup>14)</sup> ‘gaimbi’는 획득의 의미가 보다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tabcin’을 물자 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한 주체는 후금-청의 한, 버일러(bele), 암반(amban) 등이었으므로 ‘tabcilaha(tabcin했다)’,<sup>16)</sup> ‘tabcilabuha(tabcin하게 했다)’,<sup>17)</sup> ‘tabcin sindafi(tabcin 하도록 풀어서)’,<sup>18)</sup> ‘tabcin genehe(tabcin 갔다)’<sup>19)</sup> 등의 주체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후금-청 사회는 다른 나라에서 물자를 취하여 생활할 수밖에 없는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sup>20)</sup> 전쟁으로 인한 명과의 교역 단절, 재해, 기근 등의 요인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배가되었을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 바로 ‘tabcin’이었다. 때문에 만주어 문헌에서는 ‘tabcin’에 대해 도의적인 판단보다는 물자 획득과 병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다.<sup>21)</sup> 별도로 ‘tabcin’하여 남자[hahal]를 많이 얻은 병사에게 상을 내리거나<sup>22)</sup> 천총 4년(1630) 영평(永平) 점령 후 아민(Amin)은 병사들에게 ‘너희를 만족시키지 않고 데려가겠는가’라고 말한 후 ‘tabcin’하여 행복한 진자진(榛子鎭) 성의 가축과 재산을 모두 병사들에게 취하게 했다.<sup>23)</sup> 승덕 2년(1637)에는 조선 안주(安州)의 백성

14) **gajimbi**[擧來]: gūwa ba i jaka be ubade isibure be gajimbi sembi.  
다른 땅의 물건을 여기에 이르게 하는 것을 ‘gajimbi’라고 한다.

**gamambi**[擧去]: yaya jaka be gaifi genere be gamambi sembi.  
온갖 물건을 가지고 가는 것을 ‘gamambi’라고 한다.  
(『御製增訂清文鑑』 人部 取送類 232-418).

15) **gaimbi**[要]: yaya jaka be gaijara be gaimbi sembi.  
온갖 물건을 취한 것을 ‘gaimbi’라고 한다.  
(『御製增訂清文鑑』 人部 取與類 232-411).

16) 『만문노당 역주』 1, 441쪽(천총 3년 12월 11일).

17) 위와 같음.

18) 『만문노당 역주』 1, 437쪽(천총 3년 12월 1일).

19) 『만문노당 역주』 1, 596쪽(천총 4년 4월 21일).

20) 『太宗文皇帝實錄』 卷15, 천총 7년 9월 14일.

21) 천총 7년(1633) 다수의 암반들이 주변국 공략에 대해 효율적인 약탈과 전리품의 획득, 분배에 의견을 모은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박민수, 2018, 앞의 논문, 204-218쪽 참고.

22) 河内良弘 譯註·編著, 2010,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三年分』, 松香堂書店, 383~385쪽(승덕 3년 5월 27일). 이하 『崇德二·三年分』으로 쓴다.

들이 홍타이지에게 포로로 잡힌 아내와 자식을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홍타이지는 '병사들이 혈전을 통해 얻은 것을 거저 받아 돌려줄 수 있는가'<sup>24)</sup>라고 하였는데, 후금-청 사회에서 'tabcin'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홍타이지 시기 'tabcin'은 대부분 농경 사회인 명과 조선 지역에서 행해졌다. 만주어 문헌인 『구만주당』, 『만문노당』, 『내국사원당』에서 'tabcin'이 언급된 기사는 130여 건으로<sup>25)</sup> 이 중 'tabcin'의 규칙과 규칙을 어긴 인물에 대한 치죄 기사를 제외한 100여 건의 기사 중 90% 정도가 명과 조선의 'tabcin' 상황을 기록한 기사이다. 특히 명을 대상으로 한 'tabcin'은 천총 시기에서 승덕 시기(1636~1643)로 갈수록 지역 범위가 확대되었다. 천총 시기에는 화북의 북부 지역, 즉 장성 일대와 북경의 주변 지역에 집중되었다면, 승덕 시기에는 북직예와 산서 북부, 일부 산둥 지역을 포함한 화북지역 일대가 후금-청의 공격 대상지가 되었다.<sup>26)</sup> 때문에 후금-청에게는 물자 획득 및 노동력, 군비와 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명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되었는데, 특히 화북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sup>27)</sup>

몽골과 동해여진 지역에서도 'tabcin'은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tabcin'의 대부분은 농경 사회를 대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몽골과 동해여진 지역을 'tabcin'해서 얻은 인축(人畜)과 재화의 수량은 농경 사회에 비해 적었으며 종류 역시 다양하지 않았다. 몽골에서 획득한 것은 주로 사람, 낙타, 말, 소, 양 등이었고, 동해여진 지역에서 획득한 것은 주로 사람, 말, 소, 초피를 비롯한 각종 피물(皮物)이었다. 명과 조선에서는 사람, 말, 소, 노새뿐만 아니라 곡물, 견직물, 각종 귀금속 등을 얻었다. 그러나 몽골과 동해여진 지역에서 'tabcin'을 통해서

23) 『만문노당 역주』 1, 673쪽(천총 4년 6월 7일).

24) 『崇德二·三年分』, 112~113쪽(승덕 2년 2월 11일).

25) 여기서는 'tabcin'이 언급된 기사만을 다루었으며 'olji'의 획득이나 'helen[정보제공포로]'의 확보, 병사의 식량, 마초 등을 얻기 위한 물이사냥 등의 기사를 합하면 그 수는 훨씬 많다.

26) 沈一民, 2010, 앞의 책, 71쪽.

27) 정병철, 2008, 앞의 책, 74-77쪽.

주로 얻고자 했던 것은 인구(人口)였다. 누르하치 때부터 ‘조선인 열을 얻는 것은 몽고인 하나를 얻는 것만 못하고 몽고인의 열을 얻는 것은 만주 부락민 하나를 얻는 것만 못하다’<sup>28)</sup>라고 하였다. 천총 8년(1634) 12월 10일에는 흥타이지가 흑룡강 지역 동해여진으로 출정가는 바키란(Bakiran)과 삼시카(Samsika)에게 ‘획득한 olji에게 좋은 말[sain gisun]과 먹을 것으로 회유하고 언어가 같은 그들을 데리고 와서 구추(gucu)로 만들 수 있으며, 급습해 ‘tabcin’ 할 때 그들에게 우리는 한 나라이고 데려 오고자 했으나 겨를이 없었던 것이라며 그들을 수용하는 말을 하라’고 한 기사<sup>29)</sup>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만주 부락민과 몽골인을 얻는 것을 중요시했음을 알 수 있다. 승덕 원년(1636) 6월 6일에는 아쿨리(Akūli) 지역에서 얻은 남자[thahal]들이 도주하여 이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절반이 죽임을 당하는데 ‘tabcin’하여 다시 절반을 잡아 데려오는 모습도 볼 수 있다.<sup>30)</sup>

‘tabcin’ 갈 때는 가는 버일러들에게 화의를 요구하는 글을 주어 잡힌 포로들에게 명 황제나 명 관원들에게 보내도록 하였고, 포로를 잡지 못했을 경우는 ‘tabcin’ 간 지역에 글을 두고 와 한인들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명나라 백성들에게도 글을 썼는데, 후금-청은 명과의 화의를 원하며, 전쟁으로 인한 고통의 원인은 화의를 하지 않는 명 조정에 있음을 알리는 내용이었다. 화의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tabcin’을 활용했음을 알 수 있다. ‘tabcin’과 화의 요구가 동시에 또는 번갈아 일어나고<sup>31)</sup> 화의하여 재물을 얻고 물이사냥 하면서 매를 놓으며 안락하게 살고자 했던 것을 보면,<sup>32)</sup> 북방민족 사회에서 약탈과 화의 요구를 반복하면서 재물을 얻고자 한 경제 활동 방식이 흥타이지 시기에도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 김선민, 2015,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204쪽 각주 68) 재인용.

29) 東洋文庫 清朝滿洲語檔案史料の綜合的研究チーム, 2009, 『內國史院檔: 天聰 8年』, 東洋文庫東北アジア研究班, 379-380쪽(천총 8년 12월 10일), 이하 『天聰8年檔』으로 쓴다.

30) 『만문노당 역주』 3, 1784-1787쪽(승덕 원년 6월 6일).

31) 흥타이지 시기 대명 강화교섭 전개 양상은 손재완, 2023, 『흥타이지 시기(1626~1643) 후금-청과 명 간의 강화교섭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4쪽 <표 3> 참고.

32) 『만문노당 역주』 2, 1365-1375쪽(천총 6년 10월 10일).

### III. 'tabcin'의 운용과 규칙

'tabcin'은 전시 상황에서 어떻게 운용되었을까? 『內國史院檔』 천총 8년(1634) 기사에는 'tabcin'에 구체적인 규칙이나 방법을 설정하고 조직적으로 시행했음을 알려주는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①11일에 병부의 Hošoi yoto beile가 'tabcin' 가는 amban Asan, Turusi, Ušan, Toktohoi, Toktoi, 땅을 아는 Bebuge를 Han이 피해 있는 관소(避瘴所)에 데리고 가니, Han이 이들에게 말했던 말, ①“목을 때 한 병영을 만들라. 갈 때 옆에 카룬을 잘 두어라. 집에서 나갈 때부터 되돌아 도착해 올 때까지 경계하고 지키는 바를 잊지 말라”고 하였다. Turusi, Bebuge를 향하여 말하기를, ②“너희들이 이전에 갔었던 흔적으로부터 바깥쪽을 가라”고 말했다. 또 ①“도착한 후에 amban, 군사를 세 무리로 만들어라. 첫째 무리에 Turusi와 함께 여덟 압반, 군사 일백, 둘째 무리에도 여덟 압반, 군사 삼백, 그로부터 남은 군사는 마지막 무리로 여덟 압반이 Asan, Ušan과 함께 하라. ①첫째 무리는 'olji'를 지나 가서 적의 방향에 후미가 되게 가라. 다음 무리는 올지 잡아라. 적이 만약에 먼저 적은 수로 와서 '가지고 갔다'고 화내며 싸우러 왔을 때, Asan, Ušan의 무리는 좋은 곳을 찾아 숨어라. Turusi 너는 숨은 곳을 지나쳐 유인하라. 또 ③도중에 'olji'를 만나면 얻는 대로 돌아오라. 도중에 전혀 만나지 않으면 저기 유목하는 몽고 사람 있는 땅에 들어가라. 올지 잡을 때이든 잡은 뒤이든 적이 싸우러 오게 되면 잡았던 'olji'를 버릴 것인지, 버리지 않을 것인지를 너희들의 뜻대로 하라. 만약 적에게 궁지에 몰렸을 때 'olji'를 어찌 버리겠는가' 하고 연연하지 말고 여기를 또한 잘 지켜라”라고 하였다. 이렇게 건 건 마다 말하고 Han이 있는 곳으로부터 돌아올 때, beile가 가는 amban들을 향해 말하기를, 모든 의논하여 파견할 바가 있다면 Asan의 옆에 모여서 의논하라. Asan의 말을 거절하지 말라고 말했다.<sup>33)</sup>

이 기사는 'tabcin'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Han[홍타이지]이 통제하고 규정하고 있

33) 『天聰8年檔』 69-71쪽(천총 8년 2월 11일), 만주어 원문의 번역은 새로 삽입한 문구가 도말(塗抹)한 문구와 내용상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 도말한 문구로 번역하였음을 밝힌다.

는 모습이다. ㉠-㉡은 명나라 금주(錦州)로의 'tabcin' 준비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tabcin'은 부대 단위로 시행하고 부대별 인원과 역할을 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 기사의 암반과 군사의 구성은 천총 8년(1634) 2월 12일 기사에 실려 있다. 당시 파견된 암반과 군사의 수는 400명 이상으로 'tabcin'을 가는 암반은 전공이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sup>34)</sup> 그러나 매번 'tabcin'의 규모가 일정하지는 않았으며 적게는 16명이나 20명<sup>35)</sup>에서 많게는 6000명 이상<sup>36)</sup>인 경우도 있었다. 말을 먹이기 위해 이틀거리에 'tabcin'하러 가거나<sup>37)</sup> 'henlen[정보제공포로] 및 'olji'와 재화를 얻기 위해서 가는 경우,<sup>38)</sup> 성 주위를 파괴하거나 부수고 둔보(屯堡)를 취하는 경우<sup>39)</sup> 등 'tabcin'의 목적, 여건에 따라 규모가 다르게 정해졌던 것으로 보인다.

누르하치 시기이지만 앞서 살펴본 'tabcin'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삽화가 있다.<sup>40)</sup>

34) Asan, Tususi의 생애, 전공에 대해서는 何齡修, 張捷夫 主編, 1987, 『清代人物傳稿』上編 第四卷, 中華書局 참고.

35) 『만문노당 역주』 1, 441쪽(천총 3년 12월 11일); 『만문노당 역주』 3, 1485쪽(승덕 원년 2월 1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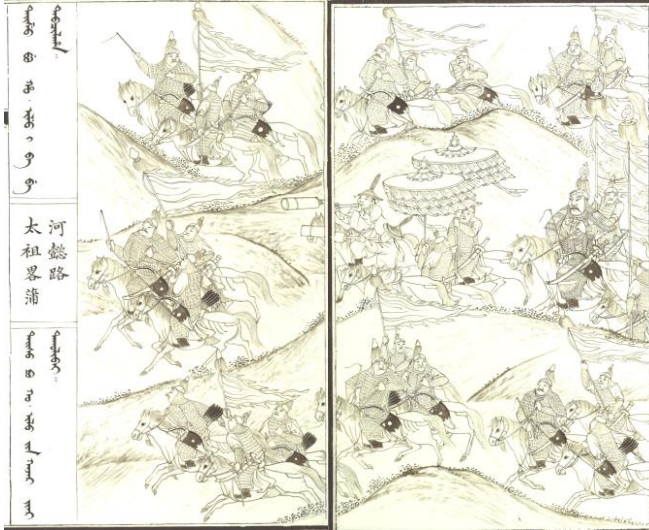
36) 『만문노당 역주』 1, 567-568쪽(천총 4년 3월 29일) 기사에는 Amin beile, Jirgalang beile, Šoto taiji가 여러 병사를 이끌고 서쪽으로 'tabcin'하러 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太宗文皇帝實錄』 卷 6, 天聰 4년 3월 29일 기사에는 이들이 병사 6000명을 이끌고 간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37) 『만문노당 역주』 3, 1534쪽(승덕 원년 3월 12일).

38) 『天聰8年檔』 82쪽(천총 8년 2월 17일); 『天聰8年檔』 87쪽(천총 8년 2월 27일).

39) 『天聰8年檔』 202-203쪽(천총 8년 7월 10일).

40) 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人民大學國學院編, 2017, 『清太祖滿文實錄大全』(전10권), 8권, 遼寧民族出版社, 38-39쪽.



[그림 1] 'tabcin'의 모습

이 삽화는 천명 6년(1621) 윤2월 11일 기사에 수록된 것으로, 태조가 명의 포하(蒲河)와 의로(懿路) 지역을 'tabcin'했던 상황을 그린 것이다. 이 때의 'tabcin' 역시 천총 8년(1634)의 기사와 마찬가지로 세 무리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는 경로를 정하여 'tabcin'을 시행했음을 알 수 있다. 'tabcin'의 방향은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바다를 따라서 길을 나누어 가는 등 주로 서서히 포위를 좁혀 가는 방식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천총 7년(1633) 9월 12일 기사에는 병사를 안으로 진입시켜 병사와 말을 쉬지 못하게 하고 쌀을 취하지 않고 서둘러 온 것에 대해서 홍타이지가 버일러와 암반들을 질책하는 기록도 볼 수 있다.<sup>41)</sup>

또한 성을 공략하기 위해 성에 밀착하거나<sup>42)</sup> 후금에 투항하지 않은 지역,<sup>43)</sup> 사

41)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譯註, 2003, 『內國史院檔: 天聰7年』, 東洋文庫清代史研究委員會, 139-140쪽 (천총 7년 9월 12일), 이하 『天聰7年檔』으로 쓴다.

42) 『만문노당 역주』 3, 1474쪽(승덕 원년 2월 12일).

43) 『만문노당 역주』 1, 538쪽(천총 4년 2월 25일).

람들이 도망쳐간 성에 들어가서<sup>44)</sup> 짧게는 하룻밤에서부터<sup>45)</sup> 길게는 한 달 정도 ‘tabcin’을 하기도 하였다.<sup>46)</sup> 성을 얻지 못하면 집, 아문,<sup>47)</sup> 곡식<sup>48)</sup>에 불을 놓고 돌아오면서 이후 쓰이게 될지 모를 명의 보급품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은 ‘tabcin’의 목적이 ‘olji’의 획득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같은 해 2월 4일 기사에서는 ‘tabcin’ 하던 암반들이 얻은 ‘olji’ 수를 한에게 보고하도록 사람을 파견하였다.<sup>49)</sup> ‘tabcin’에는 보고 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의 사례 외에도 ‘tabcin’하고 전령을 보내지 않은 이유로 Babutai Age에게 속(贖) 45량을 취하는 기록도 있다.<sup>50)</sup> ‘olji’는 전쟁에서 획득한 사람이나 가축을 의미하는데,<sup>51)</sup> ‘olji’를 만나면 얻는 대로 돌아오라는 명령이 있었지만, ‘olji’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유목하는 몽고 사람 있는 땅에 들어가라’는 명령도 내리고 있다. 이것은 명 지역에서 ‘tabcin’이 실패했을 때, 후금에 투항하지 않은 명 변경 부근의 몽골 지역에서 ‘tabcin’하여 ‘olji’를 획득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천총 8년 2월 12일 ‘tabcin’ 하러 갔던 Asan, Turusi 등이 3월 2일에 돌아오는데, 획득한 ‘olji’가 소 47마리, 말 2마리, 당나귀 3마리로 많지 않았던 것, 천총 8년 2월 19일에 Bashan, Kangkal 등이 몽고 Sirgal(席爾哈), Sibetu(席伯圖)에 ‘tabcin’ 가서 ‘olji’를 얻은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추정이 가능하다.<sup>52)</sup> 또한 적에게 궁지에 몰렸을 때 ‘olji’를 버리는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홍타이지의 말은 후금의 병사, 암반들이 ‘olji’ 획득

44) 『만문노당 역주』 1, 452쪽(천총 3년 12월 25일)

45) 『만문노당 역주』 1, 437쪽(천총 3년 12월 3일).

46) 『天聰7年檔』 113쪽(천총 7년 8월 3일); 『天聰7年檔』 136쪽(천총 7년 9월 1일).

47) 『天聰7年檔』 93쪽(천총 7년 6월 27일).

48) 『만문노당 역주』 2, 1232쪽(천총 6년 5월 28일).

49) 『天聰8年檔』 55쪽(천총 8년 2월 4일).

50) 『天聰8年檔』 367쪽(천총 8년 11월 16일).

51) 소찬영, 2010. 앞의 논문 178쪽; 松浦茂는 olji는 전장에서 얻은 부로(俘虜) 뿐만 아니라 가축, 귀금속, 의복까지 가리키기도 하며 olji의 대부분은 부로 이외의 물건이 차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만문사료에서 olji와 호(戶)를 구별해 사용하고 있는데, olji의 본질은 전장에서 획득한 여자와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松浦茂, 1986, 「ヌルハチ(清·太祖)の徙民政策」, 『東洋學報』 67(3·4) 3장 참고.

52) 『天聰8年檔』 367쪽(천총 8년 2월 19일). 누르하치 시기인 천명 4년 6월 2일에 ‘유목하는 몽고인의 말, 소, 양을 모두 빼앗았다’는 기록도 있다.

을 얼마큼 중요시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tabcin'에는 여러 규칙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처벌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산발적인 'tabcin'을 제한하여 'tabcin'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음을 의미한다. 출정 이후에 기를 이탈해 따로 'tabcin'을 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처벌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관할 어전에 게까지 죄를 묻고 있다. 부대의 분산 등으로 군사 작전 수행에 문제를 야기함은 물론 'tabcin'을 통해 얻은 'olji'와 재화의 '공평한 분배'라는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후금-청 사회에서 전리품의 분배는 한 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한이었기 때문에 이를 어기고 따로 'tabcin'하여 재물을 획득하거나 은닉하는 것, 획득한 재물을 독단적으로 취하거나 처리하는 것은 한의 권한에 대한 부정이었다. 때문에 관직(hergen)을 파직시키거나 속을 취하는 등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sup>53)</sup>

그러나 계속해서 'tabcin'을 제한했던 것은 아니며 성 등 목표지점을 공략한 이후에 버일러들과 병사들을 풀어 얼마 간의 'tabcin'을 허락하기도 하였다.<sup>54)</sup> 또 한이나 버일러의 'tabcin'을 중지하고 Yangguri efu로 하여금 병사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끌고 'tabcin'을 보내 병사의 재물 추적 욕구를 만족시켜 주려 했던 모습도 보인다.<sup>55)</sup> 천총 4년(1630) 3월 10일에 '앞서 출정했던 병사들이 얻은 재물을 수색하지 않고 사람과 나귀를 조사하지 않아 할 수 있는 한 신고 감추어 얻은 대로 취한 것을 알고 모두 가졌다고 다투고 한에 무릎 꿇고 호소했다'<sup>56)</sup>는 기사를 보면 당시 재물을 얻기 위한 경쟁이 상당했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병사뿐만 아니라 홍타이지는 자신이 아끼는 Bithesi Buran Hükio, Tobci 등을 대동, 선부에 출정 갔을 때 각각 구사에 보내 olji를 얻게 하기도 하였다.<sup>57)</sup> 문서 업무를 담당하여

53) 『만문노당 역주』 2, 1354쪽(천총 6년 9월 8일); 『天聰8年檔』, 367쪽(천총 8년 11월 16일).

54) 『만문노당 역주』 1, 570쪽(천총 4년 3월 29일); 『만문노당 역주』 4, 1996쪽(승덕 원년 9월 8일); 『만문노당 역주』 4, 2367쪽(승덕 원년 12월 16일).

55) 『만문노당 역주』 1, 613쪽(천총 4년 4월 39일).

56) 『만문노당 역주』 1, 555-556쪽(천총 4년 3월 10일).

57) 『天聰8年檔』 370-371쪽(천총 8년 11월 21일).

전공과는 거리가 있는 비트허시에게 ‘olji’를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흥타이지가 큰 은혜를 베푼 것이었다.

한과 구사어전(Gūsa ejen)에게 묻지 않고 따로 ‘tabcin’을 행하여 처벌받는 사례는 만주어 문헌에서 많이 등장한다. 처벌 내용은 자식과 아내를 울지로 삼거나 100대 채찍을 때리고 코와 귀를 뚫고 호(戶)를 나누어 그의 왕(王)에게 주거나<sup>58)</sup> ‘tabcin’으로 얻은 옷을 빼앗아 관직 있는 암반들에게 주고 말, 노새, 나귀를 빼앗아 뭇을 계산하여 분배하였다.<sup>59)</sup> ‘tabcin’의 처벌 사례에는 ‘tabcin’ 과정에서 문란하게 행동하여 당사자나 같이 간 사람들이 죽임을 당한 경우, 당사자가 살아 있다면 당사자에게, 당사자가 죽음을 당했다면 관할한 어전에게 채찍이나 속을 취한 경우가 다수 보인다.<sup>60)</sup> 어떠한 것이 문란한 행위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천총 8년(1634) 6월 7일 기사에 금지 규정 중에 있는 사항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61)</sup>

이러한 규칙하에서 획득한 ‘olji’와 재화의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tabcin’을 통해 획득한 것은 사람과 말, 소, 양, 염소, 나귀 등의 가축과 금, 은 등 귀금속, 각종 견직물, 면직물을 비롯하여 전시 상황에 필요한 군량(말뭍이, 식량)이었다.

58) 『만문노당 역주』 4 2181쪽(승덕 원년 11월 4일).

59) 『만문노당 역주』 1, 441-442쪽(천총 3년 12월 11일).

60) 『만문노당 역주』 4, 2176-2179쪽(승덕 원년 11월 4일).

61) 천총 8년 6월 7일 기사에는 ‘한이 몽골의 버일러와 새롭게 항복해 온 孔(有德) 元帥, 耿(仲明)·尙(可喜) 두 총병관에게 군대의 법[sajin]이 담긴 글을 주며 많은 사람에게 반포한 말, “군대가 출정할 때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말라. 纛[tu]과 小旗[kirul]에서 떨어지지 말라. 실은 짐이 기울어서 바로잡으려면 小旗가 모두 멈추어서 바로 잡아라. 군대가 출정한 후에 하나둘씩 흩어져 ‘tabcin’하러 가다 죽임을 당한다면 그의 자식과 아내를 울지로 삼아라. 못하게 했어야 할 어전에게도 죄를 묻겠다. 사당을 부수지 말라. 또한 관직이 없는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말라. 저항하는 자라면 죽여라. 따르는 자라면 살려두어라. ‘olji’가 된 사람의 옷을 함부로 벗기지 말라. 부부를 갈라놓지 말라. ‘olji’로 삼지 않은 자의 옷도 벗기지 말라. 어기지 말라. 여자를 범하려고 하지 말라. ‘olji’가 된 자에게 말을 지키게 하지 말라. 풀이나 식량을 가지러 갈 때 1~2인이 제멋대로 가다가 죽게 된다면 흩어져 ‘tabcin’한 죄와 같다. 또 익힌 음식을 먹지 말라. 소주와 황주를 마시지 말라. ‘먹지 말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우리들이 갔을 때 함부로 먹는 것을 알고 지금 모두 독약을 놓아 두었다고 한다. 이 말을 어기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가르쳐 말하고 큰 잔치를 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天聰8年檔』, 167쪽(천총 8년 6월 7일).

'tabcin'하여 얻은 노획물은 얻은 곳에서 노획물의 수를 맞추었는데,<sup>62)</sup> 이는 한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olji'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사람 파견뿐만 아니라 helen을 잡아서 몇 번 보낼 지에 대해서도 조율하고<sup>63)</sup> 있는 것으로 보이는 한의 통제하에서 관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팔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의 재물을 한의 옆에 모아 두고 나누는데,<sup>64)</sup> 분배 방법은 다음의 기사를 통해 그 일면을 확인 할 수 있다.

㉞노획된[olji] 사람을 각각 구사의 甲兵을 헤아려 나눠라. kutule를 포함시키지 말라.....(생략)..... 한이 말하기를, '사람을 각각 구사로 나눠라, ①1개 구사에서 쓸모 있는 工匠을 모두 50명씩 호로 만들어라. ③1개 호에게 1마리씩의 소를 쥐라. 1개 구사마다 여자 10명, 처녀들 10명과 이들이 탈 20마리의 나귀를 취하라. ②금은, 재화, 옷, 말, 소, 양, 염소, 가축을 한 곁으로 가져오라. 여럿이 처리하라. 또 ③olji로 삼을 수 없는 완강한 남자이면 처형하라. 데려갈 수 없는 노인들과 어린이들이면 쫓아서 보내고 죽이지 말라. 놓아 보내는 사람에게 선포하는 말로 "너희는 먼저 행복했으니 좋다. 우리가 갈 것이라는 이유로 도망치거나 배반하는 사람을 죽였다. 가만히 있는 사람을 戶로 만들고 데려가겠다.....(생략)....."<sup>65)</sup>

㉞은 각각 구사에 따라 노획한 사람들을 분배해 주고 있는데 쿠틀러는 포함되지 않았다. 호와 구사에 분배된 물품은 사람과 소, 나귀이다. 하지만 금, 은, 옷 등 좋은 물품은 한이 취하고 있다. 천총 3년(1629) 12월 25일 기사에서도 명 통주(通州) 주변에서 'tabcin'하여 재화를 얻었는데, 온전한, 비단, 좋은 비단 옷을 팔가(八家)가 나누어 가지고 약간의 비단 옷을 몽골의 2개 구사의 관원들에게 주고, 말, 소, 노새를 뿔을 계산해서 나누어주었다.<sup>66)</sup> 천총 6년(1632) 6월 6일의 기사에는

62) 『만문노당 역주』 2, 1232쪽(천총 6년 5월 28일).

63) 『天聰8年檔』, 152쪽(천총 8년 5월 11일).

64) 『만문노당 역주』 2, 1246쪽(천총 6년 6월 6일).

65) 『만문노당 역주』 2, 1238-1239쪽(천총 6년 6월 2일).

66) 『만문노당 역주』 1, 452쪽(천총 3년 12월 25일).

팔기의 얻은 재물을 여럿에게 나누어 주기 부족해서 팔가가 나누어 취했는데, 그 명목은 각각 구사의 가난하고 절박한 사람에게 주라는 것이었다. 그 뒤에 나누어 준 재물과 olji의 수가 나오는데, olji의 총수는 37, 482였다. olji는 한과 버일러들이 현상품으로 1개의 구사마다 10마리씩의 소, 100마리씩의 양을 취했으며 팔기의 공동재산으로 1천 마리의 양을 취했다.<sup>67)</sup> 『청태종문황제실록』 천총 6년 6월 5일 기사에는 획득한 사람과 가축이 10만 여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는데,<sup>68)</sup> 4만 정도의 인축을 각각의 구사에 나누어 주고 나머지는 한과 버일러들이 점유한 것이다.

승덕 시기 부획물(俘獲物) 분배와 관련하여 흥타이지가 무영군왕(武英郡王, Ajige)에게 내린 유(諭)를 보면, ‘각 기(旗)가 병사를 모아 성을 공격하여 얻은 모든 물건은 공동 재산으로 하여 무영군왕과 여러 암반들이 함께 처리하도록 하라. 각 기가 단독으로 성을 공격하여 얻은 모든 물건은 각 구사어전에게 넘겨주어라. 금, 은, 동주, 진주, 섬단(閃緞), 망단(蟒緞), 정단(整緞), 대단(大緞) 등의 물건은 모두 한[氏]에게 바치고 나머지 물건은 니루에 고르게 분배하라. 무릇 사람을 만나면 바로 포로로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 기회를 틈타 도망치면 너희들이 어찌 알 수 있겠는가. 무릇 물건은 보면 바로 취하라. 또 니루 마다 남정(男丁)을 10명씩 나누어 주라’고 하였다.<sup>69)</sup> 좋은 것들을 한과 버일러 등이 먼저 취하고 나머지를 분배해 암반이나 병사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다.<sup>70)</sup>

㉠-㉢을 통해 olji의 대상도 파악이 가능한데, 저항이 적은 사람 중에서 노동력에 활용될 수 있는 사람을 olji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을 보면, 노획한 ‘olji’에는 기술 노동자들도 포함되어 있어 이들을 호로 구성했음을 알 수 있다.

67) 『만문노당 역주』 2, 1246-1248쪽(천총 6년 6월 6일).

68) 『太宗文皇帝實錄』 권12, 天聰 6년 6월 5일.

69)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編, 1979, 『清代檔案史料叢編』, 中華書局, 70쪽(이 책에는 승덕 연간 명 정벌과 관련된 전보를 모은 문건인 「盛京滿文清軍戰報」가 번역되어 있어, 당시의 행군 일정, 전사자 수, 俘獲 數目 등을 알 수 있다).

70) 암반의 등급 체계와 분배에 대해서는 노기식, 1993, 「누르하치시기의 武官制와 재물분배」, 『송갑호 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총』; 2002, 「누르하치의 암반(amban)에 대한 조직화와 통제」, 『명청사연구』 16 참고.

이뿐만 아니라 천총 4년(1630) 3월 29일에는 하북 서북부의 진자진을, 절반을 호로 만들고 절반을 oiji로 삼았다는 내용이 있는데,<sup>71)</sup> 경제 기반의 안정을 위한 노동력의 확보 등이 입관 전 청 사회에서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 IV. 狹義의 'tabcin', 廣義의 'tabcin'

누르하치는 부족 통합 이후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통합체제의 필요에 의해 국가 체제를 성립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요동으로 진출한 이후 안정적인 요동 지배를 위한 각종 경제적 조치를 취했으나 요동 지배 체제의 확립은 완성되지 못하였고 후금의 경제는 악화일로에 있었다. 그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장원 편제의 축소, 일부 한인들의 자유민 신분으로 회복, 농업 진흥을 위한 각종 요역 축소, 여진인, 한인 간 차별 없는 재판과 요역의 부과 등 내부 안정을 꾀하는 여러 조치를 취하였다.<sup>72)</sup> 이러한 조치에도 후금은 여전히 물자가 부족했고 대외경제에 의존해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 후금은 국제적 고립 상태에 처해 있었다. 후금이 요동을 공격하면서 명과의 전쟁이 시작되었고 명 중심의 국제 질서에 속해 있던 조선 역시 명에 동조해 후금의 도전에 대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게다가 조선은 명과의 관계 등을 이유로 후금의 요동 지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했다.<sup>73)</sup> 명에 대해 후금과 연합 군사 활동을 벌였던 몽골은, 후금 방어를 위해 명에서 몽골이 요구한 무상은(撫賞銀) 확대 조치를 수용하자 태도를 바꿔 오히려 이후 반후금(反後金) 활동을 전개하였다.<sup>74)</sup> 후금의 대내 경제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대외경제도, 어느 하나 위기가 아닌 것이 없었다. 홍타이지는 대내외적 경제

71) 『만문노당 역주』 1, 570쪽(천총 4년 3월 29일).

72) 유소명,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2013, 앞의 책, 386~387쪽.

73) 노기식, 2001, 「만주의 흥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中國史研究』 16, 29쪽.

74) 노기식, 2001, 위의 논문, 18~19쪽.

위기를 수습할 돌파구를 찾아야만 했고, 그것은 ‘tabcin’을 통한 ‘olji’와 재화의 획득에서 시작되었다.

위의 내용들을 바탕으로 ‘tabcin’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좁은 의미의 ‘tabcin’과 넓은 의미의 ‘tabcin’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의 ‘tabcin’은, 즉각적인 ‘olji’와 재화 확보에 목적을 둔 ‘물자 보급 투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병사들을 비롯해 암반과 버일러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군수물자와 생활물자를 얻을 수 있었다. ‘tabcin’을 통해 후금-청이 얻고자 했던 군수물자는 군사 정보 획득을 위한 helen과 니루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병력, 군량, 마초, 병기 등 이었고, 생활물자는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식량, 견직물, 가죽 등 이었다. 물자 획득을 위해 ‘tabcin’의 대상지가 되었던 곳은 명과 조선, 몽골과 동해여진 지역이었다.

후금 사회에서는 전쟁에 필요한 병기, 갑옷, 군량 등 군수 물품은 병사 각자가 준비했고 군량이나 군기를 운반하는 일이 없었다.<sup>75)</sup> 게다가 산해관을 우회하여 내몽골초원을 경유하는 명으로의 원정 경로는 멀고 험했기 때문에 현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다.<sup>76)</sup> 군량과 마초 등을 구하기 위한 ‘tabcin’은 전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이었다.<sup>77)</sup> 군량, 마초의 보급과 더불어 전투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중요한 요소는 적의 군사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었는데, 후금-청에서는 적군의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helen을 잡으러 ‘tabcin’이 이루어지기도 했다.<sup>78)</sup> 군수물자와 helen 획득 과정에서 양국 간 소규모 전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후금-청은 명의 군수물자를 제거, 차단하는 활동에도 ‘tabcin’을 활용하였다.

75) 이민환 지음,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앞의 책, 128쪽.

76) 박민수, 2018, 앞의 논문, 210쪽.

77) 허인옥은 거란 병제에서 병사들이 식량과 말의 건조를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타초곡(打草穀)을 운용했는데, 타초곡의 ‘타초’는 ‘tabcin’이라는 만주어와 음가가 비슷하며, 이를 한자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타친(打草)’에 ‘穀’이 더해진 것으로 보았다(허인옥, 2020, 「유목사회의 특성과 고려-거란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60, 각주 34번).

78) 『天聰8年檔』 87쪽(천총 8년 2월 27일).

후금-청의 대명 전쟁 목적은 물자 획득에 있었지 영토 정복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 달성 이후에는 다시 자신들의 본거지로 돌아가는 일정을 반복하였다. 그 지역을 명군이 다시 수복하여 후금에 대항하는 군사기지이자 군사 보급기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이것은 후금에 결코 유리한 방향이 아니었다. 때문에 성이나 보의 공략 전후로 그 주변 지역의 집, 아문, 경작지, 곡물, 선박에 이르기까지 파괴하여 적의 군수물자와 식량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면서 명에 보급을 차단하였다. '대동지역을 파괴하고 둔보를 빼앗고 서쪽 황하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tabcin'하여 삭주성으로 합류하러 오라'<sup>79)</sup>는 기사는 'tabcin'을 통한 후금 군사 전략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넓은 의미에서의 'tabcin'은 '대외경제 확대 시도'로 정리 할 수 있다. 앞서 말했듯이 후금-청은 군수물자 외에 당면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여러 생활물자가 필요했다. 최대 공급처는 명나라였다. 천명 6년(1621) 윤2월 11일에 기사를 보면, 사르후 성 쌓기를 마치고 고생한 부역인을 위해 소를 주어 잡아먹게 하라는 누르하치의 명에 대해 암반들은 '우리 집의 소를 주는 것보다 대명국을 tabcin해서 소·나귀를 가져와 줍시다'라고 대답한다. 누르하치 시기부터 명은 자신들의 국가에 속한 속민들에게 필요한 물자도 'tabcin'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물품 공급지였다.

후금은 요동 진출 이후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한 요동 지배 체제의 안정을 도모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농업 경제에 쓰일 자원이 필요했다. 후금은 명나라 지역을 'tabcin'하여 'olji'와 재화를 확보했고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tabcin'을 통한 물자의 획득은 일시적이었고 안정적이지 못했다. 홍타이지 재위 시기 명으로의 대규모 원정, 'tabcin'을 통한 물자 획득과 더불어 명에 계속해서 화의를 요구했던 것은 바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었다. 만일 화의가 성립된다면 후금은 명조에 요구했던 대량의 세폐(歲幣)를 받아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후금의 국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sup>80)</sup> 이

79) 『天聰8年檔』 191쪽(천총 8년 6월 30일).

것은 명나라 대한 투메드의 알탄 한[Gegen Han], 차하르 립단 한의 전략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었다.

홍타이지는 알탄 한이 취했던 국인과 재물이 차하르의 립단 한을 거쳐 자신의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81)</sup> 후금은 ‘tabcin’ 등 군사적 위협과 선부 관원과 화의를 맺는 과정에서 천총 6년(1632) 6월에 명 장가구(張家口)의 관원들로부터 차하르에 줄 각종 견직물과 피물을 취했으며,<sup>82)</sup> 6월 23일에는 장가구 문(門)에서 한인과 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때 버일러들과 암반들에게 은으로 된 기물을 모두 내게 하여 교역하라고 보냈다. 당시 망단 1필의 가격은 옛날 태평한 때와 비슷한 가격인 5~6량으로 사들일 수 있었는데, 이것은 후금이 요동을 점령한 후 나라 안에서 장사할 때 200량이던 가격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sup>83)</sup>

홍타이지는 알탄 한과 립단 한의 선례를 통해 명의 물자 제공과 교역을 통한 이익이 ‘tabcin’을 통한 물자의 획득보다는 위협 부담이 적고 이익이 크며 안정적인이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sup>84)</sup> 홍타이지의 앞선 경험은 그러한 인식을 더욱 각인시켰을 것이다. 홍타이지가 화의하려는 이유에 대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한 것은 대위(大位)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재물을 조금 더 풍족하게 취하고, 서로 간에 상품을 거래하며, 각자 마음대로 사냥하고 매를 놓으며 태평하게 사는 것을 바란다’고 여러 차례 말하고 있는데,<sup>85)</sup> 이것은 대명 관계에서 안정적으로 물자를 확보하고자 했던 홍타이지의 기대를 반영한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후금과 명의 평화 협상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일부 지방 관원과 과의 맹약이 체결되기도 하였지만 이것이 명 조정과 화친 협상이 완료되었음을

80) 노기식, 2001, 앞의 논문, 24쪽.

81) 『만문노당 역주』 2, 1265-1266쪽(천총 6년 6월 13일).

82) 『만문노당 역주』 2, 1272-1274쪽(천총 6년 6월 22일); 『만문노당 역주』 2, 1301-1305쪽(천총 6년 6월 29일).

83) 『만문노당 역주』 2, 1274-1275쪽(천총 6년 6월 23일, 6월 24일).

84) 홍타이지는 명이 차하르에 1년에 100만량 남짓 재화를 준 것으로 파악하고 이 재화를 쓸모없는 차하르에게 주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 서로가 평안하게 살자고 명나라 관원에게 글을 보낸다(『만문노당 역주』 2, 1365-1375쪽(천총 6년 10월 10일).

85) 앞의 책, 1265-1266쪽(천총 6년 6월 13일); 위의 책(천총 6년 10월 10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명 조정은 화의를 거부하였고 후금-청이 다시 'tabcin'을 하게 하는 명분이 되었다.

㉔21일에 Sure Han이 Turusi, Loosa 등의 앞에 가는 병사의 어전들, 또 16암반을 '300명의 군사를 데려가 ①寧遠을 향하여 들어가 'tabcin'하라. 곳곳에 글 끼우고 남겨라'하고 보냈다. 글에 말한 것, '내가 차하르를 정벌하면서 너희의 대동, 선부 지역의 파괴된 변경과 함락된 성에 가까이 가서 전혀 취하거나 침범하지 않았다. 먼저 나귀를 빼앗은 나의 사람을 너희들의 대동, 선부 관리들 앞에 데리고 가서 죽였다. 그것은 ②나도 화의를 진실로 원했기 때문에 전혀 침범하지 않았고, 대동, 선부의 임반들과 함께 하늘에 맹세하고 화의하고 돌아왔던 것이다. 내가 화의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파괴된 변경과 함락된 성에 가까이 가서 지금 얻을 수 있는 재물, 행량(行糧)을 취하지 않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한가. 나는 너희들이 아마 이것을 헤아려 알고 나를 믿고 화의했기 때문에 사신을 보낼 것이리라 하고 기다려도 사신이 오지 않아서 내가 세 차례 사신을 보냈다'<sup>86)</sup>

㉔-②는 화친의 조건이 아니라면 후금이 명의 변경과 성에 가까이 가서 'tabcin'하여 재물과 군량을 얻지 않을 이유가 없음을 설명한다. 'tabcin'을 통한 물자의 확보는 명에 화의를 압박하는 수단이 된 것이다. ㉔-①은 화의의 압박이나 명과의 전쟁 명분을 선전하기 위한 수단으로 'tabcin'을 활용한 것이다. 이러한 글을 'tabcin'을 통해 얻은 한인 포로에게 보내기도 하였고, 한인 포로를 만나지 못하면 'tabcin' 지역 곳곳에 글을 끼워두고 오기도 하였다. 후금이 명에 지속적으로 화의를 요구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여전히 명과의 교역 등을 통해 안정적인 물자를 획득하기 어려웠던 것을 의미한다.

후금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tabcin'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천총 4년(1630) 6월 7일 아민의 죄목을 나열한 기사에서, 홍타이지는 한인들의 민심을 얻으려고 항복한 성이든 싸워서 얻은 영평성이든 한인을 전혀 침범

86) 『天聰7年檔』 23쪽(천총 7년 2월 21일).

하지 않았는데, 아민이 여기에서 'tabcin'을 자행하여 한인의 가축과 재산을 취하고 노비로 삼았다.<sup>87)</sup> 한인들의 민심을 얻으려 했던 홍타이지의 계획이 물거품이 되었다. 홍타이지는 한인의 민심을 얻고, 그들을 농업 생산에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들려고 했던 대외경제 확대 시도의 일환으로서 'tabcin'을 제한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천총 원년(1627) 후금에서는 식량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당시 후금의 경제 상황은 대기근, 요동 인구의 확대와 명과의 전쟁으로 인해 식량, 물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즉각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조선으로의 원정이었다. 두 번의 원정에서 'tabcin'을 통해 곡물과 재물을 획득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sup>88)</sup> 맹약 체결 이후에도 군사들이 사방으로 'tabcin'하였고, 승덕 원년(1636) 12월에는 며칠의 간격을 두고 홍타이지가 군사를 풀어 'tabcin'하게 한다. 조선의 왕은 'tabcin'하는 후금 병사들에 대한 피해를 홍타이지에게 알리고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sup>89)</sup>

조선에 대해서도 'tabcin'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승덕 원년(1636) 12월 13일 기사에는 'tabcin'의 대상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피도, 운종도, 대화도, 철산 등지의 한인과 만나 살고있는 조선인은 남김없이 'tabcin'할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대로(大路) 양측의 조선인과 포를 끝 소를 제외한 물건은 침범하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다. 'tabcin'으로 인해 야기될 부대의 분산과 저항을 사전에 차단해서 원정이 성공한다면, 그 후 'tabcin'에서 얻는 것들은 모든 것이 청의 몫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성공 후 홍타이지는 며칠 간격을 두고 조선 각지로 군사를 풀어 'tabcin'을 하게 했다.<sup>90)</sup>

후금은 명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국제적 고립에 처하지만, 조선과 관계를 수립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 중심의 국제 질서

87) 『만문노당 역주』 1, 673쪽(천총 4년 6월 7일).

88) 『만문노당 역주』 1, 154쪽(천총 원년 7월 10일); 346~347; 神田信夫·松村潤·岡田英弘 譯註, 1975, 『舊滿洲檔 天聰9年』, 東洋文庫(천총 9년 12월 10일).

89) 『만문노당 역주』 1, 154쪽(천총 원년 7월 10일).

90) 『만문노당 역주』 4, 2358-2361쪽(승덕 원년 12월 13일, 12월 14일).

를 교란시켜 명의 후금에 대한 압박을 약화시켰다.<sup>91)</sup> 당시 후금-청은 명을 대체할 수 있는 물자 공급지가 무엇보다 필요했고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조선이었다. 후금-청은 조선과 맹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조선에 군량과 식량을 요구하고, 변경 호시를 요구하거나 포로 송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신을 파견해서 심양관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러한 상황들이 『瀋陽狀啓』 곳곳에서 나타난다. 이에 조선은 후금의 요구에 곡식을 제공하고, 포로가 된 조선인들을 속환하는 과정에서 많은 재물을 소비해야 했으며,<sup>92)</sup> 개시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sup>93)</sup> 후금-청의 요구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조선 원정 역시 조선을 압박하여 후금이 원하는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랐던, 넓은 의미에서의 'tabcin' 과정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홍타이지의 대외경제 확대 시도는 몽골과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홍타이지 시기 명조의 지원을 받아 반후금 활동을 주도하던 립단 한은 무상운을 독점할 수 있게 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몽골 사회의 정치적 통일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일부 몽골 세력은 후금과 반립단연맹을 형성하였다.<sup>94)</sup> 홍타이지는 천총 6년(1632) 립단 한을 정벌하기 위해 출정하였는데, 립단 한의 서천(西遷) 소식에 귀화성을 점령하고 들어간 마을마다 사람과 가축을 거두고 집과 곡식에 불을 놓으며 보급을 차단하였다.<sup>95)</sup> 홍타이지는 명에 립단 한이 가지고 있던 경제권을 요구하여<sup>96)</sup> 일시적으로 명과 교역을 하였는데, 이로써 홍타이지는 몽골 세력이 가지고 있던 만리장성 지역에서의 대명 경제 관계를 병합하게 되었다.<sup>97)</sup> 이후 홍타이지는 만리장성 지역에서 대명 관계를 주도하게 된다.

91) 노기식, 2001, 앞의 논문, 30쪽.

92) 『仁祖實錄』 권18, 인조 6년 4월 3일; 『仁祖實錄』 권41, 인조 18년 12월 18일.

93) 김종원, 1999, 앞의 책, 115-125쪽.

94) 노기식, 2001, 앞의 논문, 18-21쪽.

95) 『만문노당 역주』 2, 1230-1232쪽(천총 6년 5월 26일, 천총 6년 5월 28일).

96) 위의 책, (천총 6년 10월 10일).

97) 노기식, 2001, 앞의 논문, 26-28쪽.

## V. 맺음말

본 연구는 만주어 문헌에 기록된 ‘tabcin’에 주목하여 흥타이지 시기(1627~1643) ‘tabcin’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고, 국제적 고립과 경제 위기의 돌파구로서 ‘tabcin’의 의미를 입관 전 청의 시각에서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tabcin’은 기존에 ‘약탈하다, 노략질하다, 빼앗다’ 등의 부정적이고 단편적인 개념으로 통용되어 왔다. 그러나 ‘tabcin’이 후금-청의 입장에서 교역 단절, 국제적 고립, 기근 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대외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정치적, 군사적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한다면, 보다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개념으로 ‘tabcin’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만주어 문헌 속에서 ‘tabcin’은 후금(청)이 처한 경제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도의적인 판단보다는 생존을 위한 물자 획득과 한, 버일러, 암반, 병사들의 재물 축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흥타이지 시기 ‘tabcin’의 대상지는 농경 사회에 국한되지 않았는데, 인구 조달이나 대명 경제 관계 병합을 위한 동해여진과 몽골 지역으로의 ‘tabcin’도 이루어졌다.

‘tabcin’은 무질서하게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며 구체적인 규칙이나 방법을 설정하고 조직적으로 시행되었다. ‘tabcin’과 관련된 제반 사항은 한이 통제하고 규정하였으며, ‘tabcin’은 부대 단위로 시행하고 부대별 인원과 역할이 있었다. 목적과 여건에 따라 ‘tabcin’의 규모, 경로, 기간이 상이하였으며, 군사 작전 수행, 획득품의 공평한 분배 문제로 ‘tabcin’에는 여러 규정과 법도가 정해져 있었다.

흥타이지 시기 대내외적 경제 위기를 수습할 돌파구였던 ‘tabcin’에 대한 개념을 정리해보면, 좁은 의미의 ‘tabcin’과 넓은 의미의 ‘tabcin’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좁은 의미에서의 ‘tabcin’은, 즉각적인 ‘olji’와 재화 확보에 목적을 둔 ‘물자 보급 투쟁’으로 정리할 수 있다. 후금은 ‘tabcin’을 통해 군수물자와 생활물자를 얻으려 하였는데, ‘tabcin’의 대상지가 되었던 곳은 명과 조선, 몽골과 동해여

진 지역이었다. 후금은 군수물자 확보 이외에 명의 군수물자를 제거, 차단하는 활동을 전개하는데도 'tabcin'을 활용하였다.

넓은 의미에서의 'tabcin'은 '대외경제 확대 시도'로 정리 할 수 있다. 홍타이지 시기 명으로의 대규모 원정, 'tabcin'을 통한 물자 획득과 더불어 명에 계속해서 화의를 요구했는데, 이것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물자 확보를 위한 노력이었다. 만일 화의가 성립된다면 후금은 명조에 요구했던 대량의 세폐를 받아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후금-청의 국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명 조정은 화의를 거부하였고 후금-청이 다시 'tabcin'을 하게 하는 명분이 되었다.

후금-청은 더 큰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서 'tabcin'의 허용 범위를 제한하기도 하였다. 홍타이지는 한인의 민심을 얻고, 그들을 농업 생산에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만들려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tabcin'을 제한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목표는 실패하고 만다.

후금-청은 명 중심의 국제 질서에서 이탈하면서 국제적 고립에 처하지만, 조선과 관계를 수립하면서 고립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또한 후금-청은 명을 대신할 물품 공급지가 무엇보다 필요했고 그 대상으로 삼은 것이 조선이었다. 후금-청의 조선 원정은 식량 부족 문제 해결, 포로 속환을 통한 자원 확보, 변경 호시의 요구 등 후금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홍타이지는 차하르 정벌을 통해서 몽골 세력이 가지고 있던 만리장성 지역에 서의 대명 경제 관계를 병합하게 되면서 이후 만리장성 지역에서 대명 관계를 주도하게 된다.

'tabcin'의 구체적 양상과 개념을 파악해 보는 것은, 입관 전 청 사회의 경제 생활 방식을 입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한다. 또한 기존 연구에서 주로 다루었던 입관 전 청과 명, 조선, 몽골 간의 거시적인 대외관계에서 자칫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는 일방적 시각을 다각적으로 반영하여 다양한 흐름에서 홍타이지 시기의 경제적 상황과 대외관계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 참고문헌

### 1. 자료

『明實錄』, 『崇禎長編』, 『御製增訂清文鑑』, 『朝鮮王朝實錄』, 『清實錄』

故宮博物院明清檔案部編, 1979, 『清代檔案史料叢編』, 中華書局

東洋文庫清代史研究室 譯註, 2003, 『內國史院檔: 天聰7年』, 東洋文庫清代史研究委員會

東洋文庫 清朝滿洲語檔案史料의 綜合的 研究 팀, 2009, 『內國史院檔: 天聰 8年』, 東洋文庫  
東北アジア 研究班

東洋文庫 清朝滿洲語檔案史料의 綜合的 研究 팀, 2013, 『內國史院檔: 天聰 5年』, 東洋文庫  
東北アジア 研究班

神田信夫·松村潤·岡田英弘 譯註, 1972, 『舊滿洲檔 天聰9年』, 東洋文庫

中國第一歷史檔案館 編, 1989, 『清初內國史院滿文檔案譯編』, 光明日報出版社

中國第一歷史檔案館·中國人民大學國學院編, 2017, 『清太祖滿文實錄大全』(전10권), 8권, 遼寧民族出版社

河內良弘 譯註·編著, 2010, 『內國史院滿文檔案譯註-崇德二·三年分』, 松香堂書店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주학센터 만주실록 역주회, 2014, 『만주실록 역주』, 소명출판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만문노당연구회, 2017, 『만문노당 역주』 1~4, 소명출판

김주원 외 역주, 2019, 『만문노당』,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정하영 외 역, 2008, 『심양장계-심양에서 온 편지』, 창비

### 2. 저서 및 논문

姜守鵬, 1986, 「遼西對峙時期的明清議和」, 『東北師大學報』 第6期

谷井陽子, 2006, 「八旗制度再考(二)-經濟的背景」, 『天理大學學報』 57-2

關克笑·麻秀榮, 1998, 「滿族崛起時期的多元經濟」, 『滿族研究』 第1期

김두현, 1987, 「요동지배기 遼東支配期 누르하치의 對漢人政策」, 『동양사학연구』 25

김문기, 2012,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김선민, 2015, 「훈춘, 청과 조선의 변경」, 『만주연구』 19

남의현, 2014, 「16~17세기 豆滿江 邊境地帶 女眞의 성장과 국제질서의 변화-瓦爾喀 등 女眞族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41

노기식, 1999, 「後金時期 만주와 몽골의 聯盟 關係」, 『明清史研究』 11

\_\_\_\_\_, 2001, 「만주의 몽골 차하르부 병합과 그 의미」, 『中國學論叢』 14

\_\_\_\_\_, 2001, 「만주의 흥기와 동아시아 질서의 변동」, 『中國史研究』 16

- \_\_\_\_\_, 2002, 「누르하치의 암반(amban)에 대한 조직화와 통제」, 『명청사연구』 16
- 東洋史學會 編, 1993, 『東亞史上的 王權』, 한울아카데미
- 夔 凡, 1998, 「明代女眞族多元經濟的特点及影响」, 『黑龍江民族叢刊』 第3期
- 마크 C. 엘리트, 이훈·김선민 역, 2009, 『만주족의 청제국』, 푸른역사, 2009
- 박민수, 2018, 「홍타이지 시기(1627-1643) 만주의 對 중국 전략」, 『軍史』 107, 2018
- 付 博, 2017, 『清入關前經濟類型與財政政策研究』, 遼寧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 謝景芳, 1995, 「明末皇太極北擄中原人口考實」, 『中國史研究』 第3期
- 杉山清彦, 2015, 『大清帝國の形成を八旗制』, 名古屋大學出版會
- 소찬영, 2010, 「入關前 清朝의 經濟의 狀況-崇德 年間の 掠奪戰과 奴僕(aha) 계층을 中心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 34
- 孫文良·李治亭 著, 2012, 『明清戰爭史略』,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孫文良·李治亭, 2012, 『清太宗全傳』, 中國人民大學出版社
- 손재완, 2023, 『홍타이지 시기(1626~1643) 후금-청과 명 간의 강화교섭 전개 양상과 그 의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松浦茂, 1986, 「ヌルハチ(清·太祖)の徙民政策」, 『東洋學報』 67(3·4)
- 沈一民, 2010, 『清南略考實』, 黑龍江大學出版社有限公司
- 유소맹, 이훈·이선애·김선민 역, 2013, 『여진 부락에서 만주 국가로』, 푸른역사
- 이민환, 중세사료강독회 옮김, 2014, 『1619년 시하 전쟁과 포로수용소 일기-책중일록』, 서해문집
- 이선애, 2018, 「滿文史料를 통해 본 後金시기 滿·蒙 관계」, 『明清史研究』 49
- 이옥지, 2021, 「천총8-9년 후금의 동해여진 원정과 홍타이지의 팔기개혁」, 『명청사연구』 55
- 이재경, 2010, 「入關 이전 「莊(특소)의 형성 및 운영-崇德 연간 『瀋陽狀啓』의 農所 관련 기록을 중심으로-」, 『서울대 동양사학과논집』 34
- 李鴻彬, 2003, 『滿族崛起與清帝國建立』, 天津古籍出版社
- 정병진, 2022, 「女眞의 추장에서 滿·漢의 군주로: 누르하치와 홍타이지의 말과 글」, 『인문 과학연구』 75
- 정병철, 2008, 『天崩地裂의 시대, 明末清初의 華北社會』, 전남대학교 출판부
- 조병학, 2004, 「후금(淸)의 扈魯岡 部族에 대한 평정 과정 및 복속 정책」, 『몽골학』 17
- 토마스 바필드, 윤영인 역, 2009,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 패멀라 카일 크로슬리, 양휘웅 역, 2013,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 何齡修, 張捷夫 主編, 1987, 『清代人物傳稿』上編 第四卷, 中華書局
- 허인욱, 2020, 「유목사회의 특성과 고려-거란 전쟁」, 『한국중세사연구』 60
- 胡坤, 2011, 『后金(淸)「南略」與明末清初北方社會心態的演變』, 曲阜師範大學 碩士學位論文

■ Abstract ■

Surviving in Liaodong: *Tabcin* as a Breakthrough in the  
Economic Crisis under the Rule of Hongtaiji  
: With Focus in Tiancong(1627-1636) Era

Kim, Yun-soon (Kangwo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the specific patterns of *tabcin* during the Hongtaiji Tiancong(1627~1636) Era with a focus on *tabcin* recorded in literature written in the Manchu language and investigates the meanings of *tabcin* as a breakthrough from international isolation and economic crisis in the viewpoint of the early Qing period.

In the literature written in the Manchu language, *tabcin* was an instant and efficient means to resolve the economic crisis faced by Later Jin (Qing), being set for its concrete rules or methods and implemented in an organized manner under the control of Hongtaiji.

The concept of *tabcin* during the rule of Hongtaiji can be examined in both a narrow and broad sense. In a narrow sense, *tabcin* represented a “material supply struggle” whose goals were instant “olji” and the securement of goods. The coverage of *tabcin* included the regions of Ming Dynasty, Joseon Dynasty, Mongol, and Donghai Jurchen. *Tabcin* was also utilized in activities to eliminate and block the war supplies of Ming.

In a broad sense, *tabcin* was an “attempt to expand international economy.” Hongtaiji consistently asked Ming to join peace negotiations in addition to a large-scale expedition to Ming and the acquisition of supplies through *tabcin* to secure continuous and stable material supply by stabilizing relations with Ming. Later Jin tried to maximize its economic profit to solve its food shortage, secure financial resources through bought-back prisoners, and request for border markets by growing out of its international isolation and pressuring its supply centers to play the role of stable food and material supply through an expedition to Joseon and *tabcin*. Following his conquest of Cahar, Hongtaiji ensured a merger through economic relations with Ming along the Great Wall of China under the

influence of Mongol, taking the lea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ngol and Ming Dynasty in the regions along the Great Wall. As he succeeded in his attempt to expand international economy to overcome an economic crisis and isolation through neighboring countries, an international order around the northern nations was formed and led to the conversion into the Qing Imperial Order.

Key words: Hongtaiji, Tabcin, Plunder, Liaodong, Economic Strategy